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일반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출중한 능력 못지않게 도덕적인 자질도 훌륭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박한 바람은 대부분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종에는 국회의장의 속보이는 거짓말과 일부 판사들의 거리낌 없는 막말이 두루 회자됐다.

결국 국회의장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판사들은 반드시 그 이유만을 아니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정계나 인사의 불이익을 통보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두 사건을 두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고작 이 정도의 의식 수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단 말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면, 일종의 도덕적 강박관념

환자일까.

개인적인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금방 드러나게 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대는 국회의장과 SNS에 '가카의 빅엿'이라거나 '가카새끼 째뽕'이라는 글을 올리는 판사 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직자 모습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판사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은 우리사회의 정치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희화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회의장의 거짓말은 파격치한 것이 분명하고, 판사들의 막말은 최소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듯이 말을 제 때, 잘 가려서, 올바르게 하거나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여덟 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 가운데서 바른 언어생활에 해당하는 '정어(正語)'의 가르침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올바른 말'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도덕적 뉘앙스는 자못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에는 이른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종류의 업이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짓고 있는 업의 대부분은 이른바 '구업(口業)' 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말은 행동에 앞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리라.

누구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일단 말을 돌려대기 쉽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불속 험한 말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열려 있는 입을 제대로 단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을 가리켜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절하게도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네 가지 악행을 자세하게 일러주신 바 있다. 이른바 망어(妄語)와 악구(惡口)와 양설(兩舌)과 기어(綺語)의 가르침이 곧 그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용법으로 바꾸면 각각 거짓말과 욕설 또는 막말,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과 의도적으로 꾸며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며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낳는 말도 하고 또 그럴듯하게 말을 포장하기도 하면서 산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를 두고 율가율부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찌하면 너무 무미건조해 질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자 할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잡아떼기 식 거짓말과 사안의 옳고 그름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판사들의 가벼운 입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어의 참 뜻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도 참된 불자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 듯 스쳐 지나갔다.

社說

룸비니 동산에 내린 꽃비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여 년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인도 쿠시나카에서 열반을 하고,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방방곡곡으로 나누어 모셔졌다. 정작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동산에는 사리가 봉안되지 못했다. 사리가 곧 부처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도 신곳에 부처님이 안계셨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도선사108산사순례회가 2월 15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기념비와 탄생불을 조성한 것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계의 원력으로 탄생지 룸비니 동산에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점도 의의지만 그보다 नेपाल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양국 불교유의를 증진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세계일화(世界

一華)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모르고 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नेपाल 그리고 사리를 기증한 인도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라는 형제적식을 갖고 친교를 다한 인연의 자리인 것이다.

행사장에서 नेपाल 정부는 한국 불교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헬기를 동원해 하늘에서 꽃비를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룸비니동산에 한국과 नेपाल 불자들이 세운 평화와 상생의 서원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조계종과 유네스코와 함께 하기로 한 룸비니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회화로 이뤄지길 기원한다. 먼 한국까지 와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नेपाल 등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시 내리던 꽃비처럼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바란다.

유물기증, 종단의 제도화 필요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때, 불교중앙박물관이 유물기증 운동을 시작한다.

유물기증운동은 근현대 고승대덕스님 등 중앙교역적 스님들도 대상이다. 유물 기증 대상은 종정스님 등 조계종 고승대덕스님들이다. 총무원장스님 등 중앙교역적 스님들도 대상이다.

추개 한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등에 집착할 리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문중에 기증해 각 사찰 성보 박물관 등에 보관할 것인지, 종단에 기증해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종단이 유물기증운동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종법·종령 제정을 통해 유언장 작성처럼 제도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IMF당시 서민들만큼 내다팔고 정작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들었던 것과 같은 한심한 광경이 박물관에서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대덕 큰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자들은 안다. 큰스님들이 삼보정재로 마련돼 출가사문답게 위의를 갖

사부대중 칼럼



김은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초등학교에는 지금도 플라타너스 무성한 자태로 유년시절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머금고 있다. 지금이야 분교로 전락해버려 교사(校舍)의 한 곳에서는 유치원이 들어서 있고 아이가 귀한 시대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마음 속 푸른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하다.

그 숲털 갈기만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때, 난 학교가 뒤집힐 정도의 대사건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었다. 키 높은 담장을 훌쩍 넘나들던 그네 타기는 그 시절 가장 신명나는 운동장의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였다. 순서를 기다려 돌아가며 타던 그네는 사건이 있던 그날, 내게는 흥기에 되어 날아든 비수가 분명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나게 발을 굴러 그네를 타고, 어느 때처럼 주변에는 삼삼오오 또래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나 높이 나는 그네의 움직임을 따라 까만

눈동자를 아래로 위로 굴리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게 최고라는 평정을 얻으며 그네를 운전했고, 5교시가 시작되기 전 학습의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평소의 시간보다 빨리 그네에서 몸을 내렸다.

순간, 옆에서 관망 정도의 시선을 보내오던 같은 동네의 남자 녀석이 다른 녀석에게 "때려!" 라는 말을 했고, 그 녀석은 이내 내가 내린 그네의 쇠발판을 들어 내 얼굴로 던졌다. 순간, "재봐, 어떡해!" "아악! 피 좀봐!" 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나는 그 길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 보니 병원의 네모가 반듯한 하얀 천장이 눈앞에 있었고, 부모님은 너무도 경직된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병원에서 하루쯤 있었던 것 같고, 어린 나의 입술 위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하얀 거즈가 딱 하니 붙여져 있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난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렀고, 교육대학을 갓 졸업하고 학교로 부임해 온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의 병문안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을날의 빨간 홍시를 입에 떠 넣어 주시던 엄마, 하얀색 우유를 사 오신 선생님. 그러나 상처를 입은 연약한 입술은 그 작은 스트로우를 빨아들이지 못했다. 일주일 여를 보내고 학교에 가니, 교장선

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위로가 담겨있고, 가해자와 옆에서 가해를 불러일으킨 최초 공범인 녀석은 얼마나 많은 꾸중을 듣고 벌을 썼는지 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교실의 한 구석에서 중역 죄인의 모습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직접 가해를 입힌 녀석은 다음 아닌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기에 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시킨 녀석의 엄마는 마치 나를 당신의 혈육인 양 안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지어졌고, 다행히도 읍사무소 옆에 있던 작은 의원의 의사 선생님은 감쪽같이 내 입술을 본래대로 만들어 주셨다. 5학년이 되며 난 고향에서 가까운 대도시로 전학을 했고 고향을 찾을 때마다 그 의원의 간판을 감사의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보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녀석들의 가해 이유는 명확치도 않아 지금도 내게는 숙제로 남아 있다.

하나, 나는 알고 있다. 학습의 반장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녀석들에게 얼마나 실력행사를 했기에 버리고 버려야 못한 녀석들이 분노에 차 불속 일을 저지른 것이었을까를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무지막한 일을 저지를 리 만무하다는 내내로의 결론이 있어 난 성인이 되고도 지친

명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조금도 녀석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더욱 감사한 것은 여자에의 얼굴에 그것도 가장 민감한 입술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나의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 학교 측에 대고 한 마디의 분노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병원에서 운운하지 않으셨다는 거다.

세상의 이치는 언제나 인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하듯 부모님의 자량(慈量)은 너무도 탁월하셨다. 더욱이 사내 녀석으로서 힘의 논리를 쓴다는 것이 감당 못할 일로 일파만파가 되자, 근신과 반성으로 지내며 내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지친명을 바라보는 시대의 주역들이 친구 녀석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빙그레 미소가 번진다.

인과법, 혹은 연기법으로 귀결되는 우주의 이치를 또렷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일도, 자녀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는 일도 지금처럼의 무질서로만 행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정신을 리드하는 절에서부터 인식을 심어줌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를 불교인이 양자로서 이루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부르던 내 유년처럼 되돌리고 싶다.

그래도 아프지 않은 유년의 기억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문들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곱곱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자주풀이의 범수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영부적 대사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진국 서점 판매중!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유임이 보인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한국인의 별칭 자미두수 비법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功念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4x6배판/高山 영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그림 당사주 대전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풍수 양택통론
우영 서상성 역·지/신국판/40,000원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880쪽/각 권 50,000원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